

2023년 9월 재잘재잘



# Read the city with your (in)dependent other (Sense)

도시 및 지역 계획학 석사 과정  
권소희

# 걷기



〈산티아고 순례길 <https://brunch.co.kr/@yanatrip/233>〉

## Jeju Olle Trail Route Information



## 〈제주 올레길 지도〉

<https://www.korea.kr/briefing/policyBriefingView.do?newsId=148842984>

# 걷기



〈박소현, 최이명, & 서한림. (2015). 동네 걷기 동네 계획〉

## 〈도시 보도의 효용〉

- 도시의 안정성 증가
- 구성원간의 접촉 증가
- 어린이들의 도시 내 동화 증진

# 도시의 존재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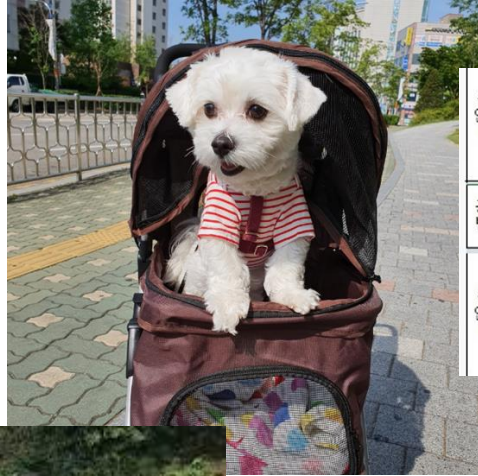


〈인적이 드물어진 영국 북웨일즈 휴양지 란두드노에 나타난 야생 염소떼〉



〈칠레 수도 산티에고 거리에 나타난 퓨마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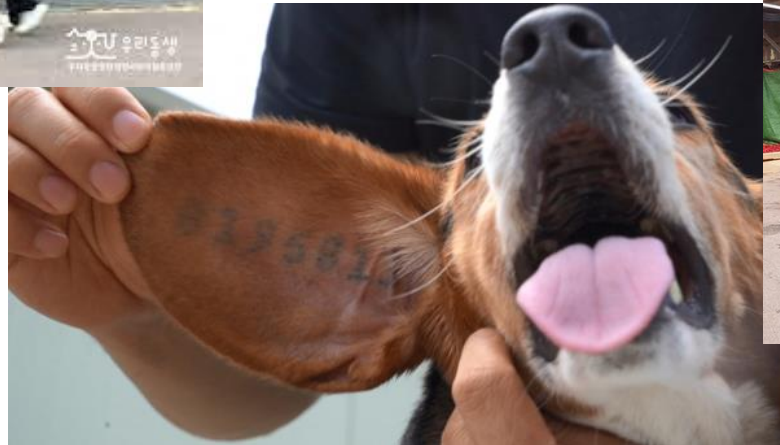
# 도시의 개



충남-전 안-2019- 01713		111
공고 번호	사진	별첨 번호
충남-전 안-2020- 00934		003

충남-전 안-2019- 01361		107
공고 번호	사진	별첨 번호
충남-전 안-2018- 00329		044

충남-전 안-2018- 01493		095
공고 번호	사진	별첨 번호
충남-전 안-2020- 00011		



# '오감五感 도시'를 위한 보행자

- 시각 중심의 근대적 도시계획은 합리성, 효율성, 심미성을 추구하며 진보하였으나 도시를 전유하기 위해서는 오감을 동원하여 '보이지 않는' 도시를 경험해야 하며, 이 결과 도시는 읽히기 쉬운 (legibility) 공간(space)이 아닌, 경험이 주는 애착이 깃든 장소(place)가 되어 활력을 가질 수 있음(김미영, 전상인, 2014).
- 개는 체고가 30~50cm로 시선이 낮아 숨어 있는 길고양이나 새를 발견하면 충동적으로 달려나가거나 사람의 1만배 이상의 후각 능력으로 쿵쿵거리며 도시를 파악하고 조금 더 궁금한 대상은 직접 훔아보기도 하고, 산책할 때 신발을 신지 않아 아스팔트와 잔디밭의 나뭇잎을 직접적으로 감각하고, 사적인 거리가 사람(46cm)보다 확연하게 가까워(2cm) 새로운 대상과의 접촉이 일상적임(Horowitz, 2022).
- 인간의 생물학적 · 사회적 · 문화적 한계로 인해 실천하기 어려운 '오감도시'를 반려견과의 걷기를 통해 실천할 수 있으며, 이는 '인간이 보지 못한' 도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.
- 불완전한 대화를 통해 보행 속도와 서고 걷는 행위를 맞춰나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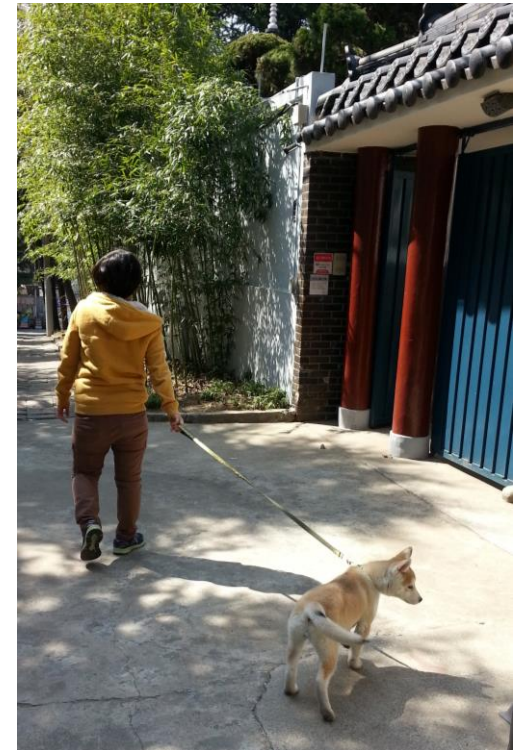


사진. 반려견과 산책하는 필자

# 지금까지의 사고과정



ANT — 어셈블리지

Flaneur

거주하다dwelling

Right to the city for Animals

혼종성/ 혼종적 주체 hybrid subject

반려견 놀이터

반려견 순찰대

# 1. 연구 배경 및 목적

-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국내 **반려견을 키우는 가구**는 2,423천 가구 (11.6%).

-전국 반려동물 양육 가구 중 읍면부가 아닌 **동부에 속한 가구**는 74.5%

- 도시 내 여러 동물 중, (특히 반려 동물 중에서도) **'반려견'**은 **도시의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을 모두 이용**하는 존재임.

-(사적 공간) 반려동물의 87.5%가 실내 사육 (2021 동물 복지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)

-(공적 공간) 응답자의 47.8%가 일 1회 이상 산책 (송진경 외, 2022)

-(제도적 허용) COVID-19로 인해 프랑스에서 락다운 시행했을 때, 예외 조항 중 **반려견 산책이 있었음**.

-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12조에 따라 **반려견과 산책 시 반려견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2m 이내로 유지**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. (2022년 2월 시행)

→ '반려견 산책'이 **법적으로 명시된 행위**이자, 공적 공간에서의 개는 인간과 **물리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존재**로서,

'인간-반려견'이라는 **새로운 혼종적 주체**가 생성됨.

그림 2. 프랑스 이동 확인서 양식 및 작성 방법

해당 확인서는 본인이 알파벳으로 작성, 서명하셔서 제출시 반드시 격함하여야 합니다.

**ATTESTATION DE DÉPLACEMENT DÉROGATOIRE**  
En application de l'article 1<sup>er</sup> du décret du 16 mars 2020 portant réglementation des déplacements dans le cadre de la lutte contre la propagation du virus Covid-19 :

Je soussigné(e)  
Mme / M. 이름  
Né(e) le : 생년월일/월/년  
Demeurant : 프랑스 내 주소(예, 125 rue de grenelle 75007 Paris)

certifie que mon déplacement est lié au motif suivant (cocher la case) autorisé par l'article 1<sup>er</sup> du décret du 16 mars 2020 portant réglementation des déplacements dans le cadre de la lutte contre la propagation du virus Covid-19 : 다음 경우를 해당 사항에 적으세요.

- déplacements entre le domicile et le lieu d'exercice de l'activité professionnelle, lorsqu'ils sont indispensables à l'exercice d'activités ne pouvant être organisés sous forme de télétravail (sur justificatif permanent) ou déplacements professionnels ne pouvant être différés;  
주거지 및 직장 간 이동 (회사의 영구적인 확인을 지참)
- déplacements pour effectuer des achats de première nécessité dans des établissements autorisés (liste sur gouvernement.fr);  
필수품 구매를 위한 이동 (정부의 승인된 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함)
- déplacements familiaux impérieux pour l'assistance aux personnes vulnérables ou la garde d'enfants;  
가족 구성원 중 노약자, 또는 아이를 돌볼 수 없도록 필요하여 이동
- déplacements brefs, à proximité du domicile, liés à l'activité physique individuelle des personnes, à l'exclusion de toute pratique sportive collective, et aux besoins des animaux de compagnie.  
주거지 인근에서 개인적인 운동(단체 운동을 제외) 및 반려견 산책

Fait à 프랑스 내 도시(예, Paris), le .../.../2020  
서명 (signature)

자료: 프랑스 내 반려견 산책, 2022년; 출처: [http://overseas.mofa.go.kr/fr-ko/bd/m\\_3450/ist.do](http://overseas.mofa.go.kr/fr-ko/bd/m_3450/ist.do)



# 연구 배경 및 목적

- 연구 목적

- 새로운 도시 보행자로서 인간-반려견 혼종적 주체의 걷기 실천 분석을 통해

- 도시에 새롭게 등장한 인간-반려견 혼종적 주체에 대해 정의함.

- 도시 공간환경에 따라 나타나는 인간-반려견 혼종적 주체의 걷기 실천 차이를 분석하여

- 새로운 관점에서 도시 보행 공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함.

- 연구 질문

- "걷기 실천이 드러내는 새로운 도시 보행자로서 인간-반려견 혼종적 주체의 특징은 무엇인가?"

- "인간-반려견 혼종적 주체의 걷기 실천은 도시 공간환경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?"

# 연구 범위 및 방법

- 연구 범위

[시간적 범위] 2023년 7월 ~ 9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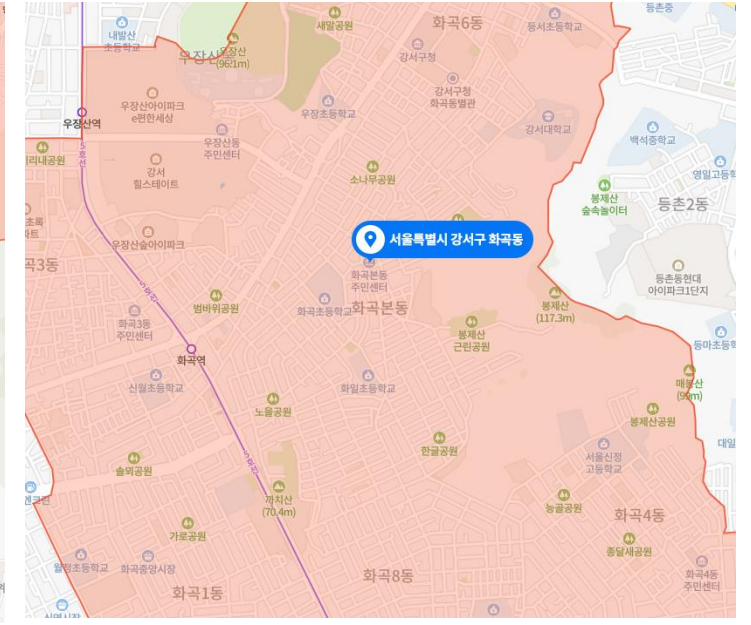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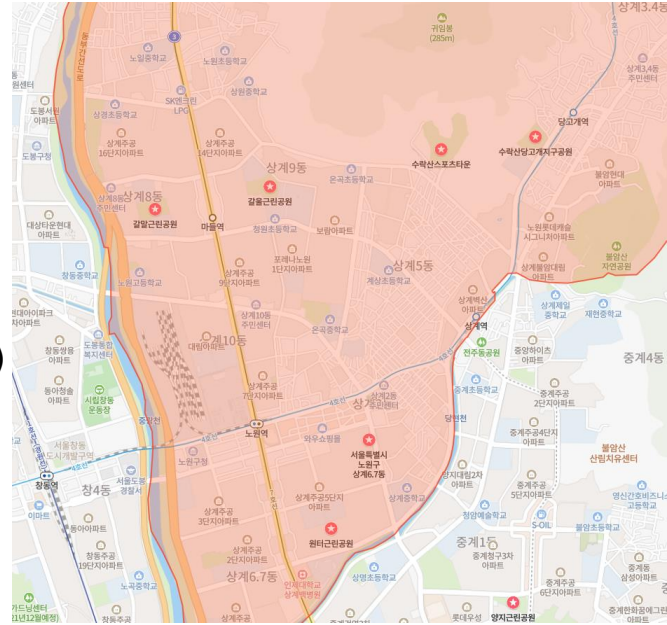
[공간적 범위]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,  
서울시 강서구 화곡동

-주 3회 이상 반려견과 산책을 하는 시민 (각 5명 이상)

- 연구 방법

-대상지의 보행 공간 분석

-반구조화된 인터뷰



	노원구 상계동	강서구 화곡동
면적(km <sup>2</sup> )	15.68	6.46
주민 수	198,706	196,388
등록 반려견 수	11,091	12,512
반려견 놀이터	8개소	없음

# 문제적trouble 주체와 함께-되기: 공-산

주의를 기울이기



등을 반듯하게 펴고 앉은 <짐의 개>

- 지의류로 덮인 불탄 그루터기.
- "이 개를 만질 때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만지고 있는 것일까?"

(Donna Haraway. 종과 종이 만날 때. 2008.)

상호작용Inter-action



<타이어 장애물을 통과하는 카엔 페퍼>

- "불통에 가까운 대화"를 통해 '상호작용 (inter-action)'
- 축축한 헛바닥으로 날름날름 핥는" 행위의 '내적작용 (intra-action)'
- 서로를 새로운 유전체와 결합된 개체로서 반려종이라는 혼종적 주체로 변모시킴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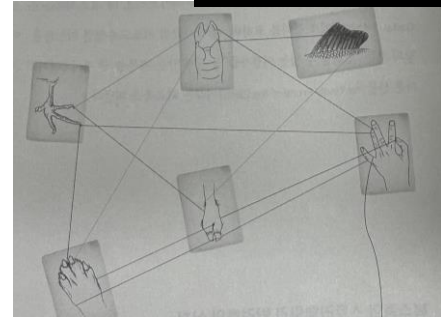
(Donna Haraway. 반려종 선언. 2003.)

내적작용Intra-action



출처 cbs1 세상의 모든 기행 430편. 겨울이면 고립무원 2부 스님, 고립무원은 어떤가요?

공-산sympoiesi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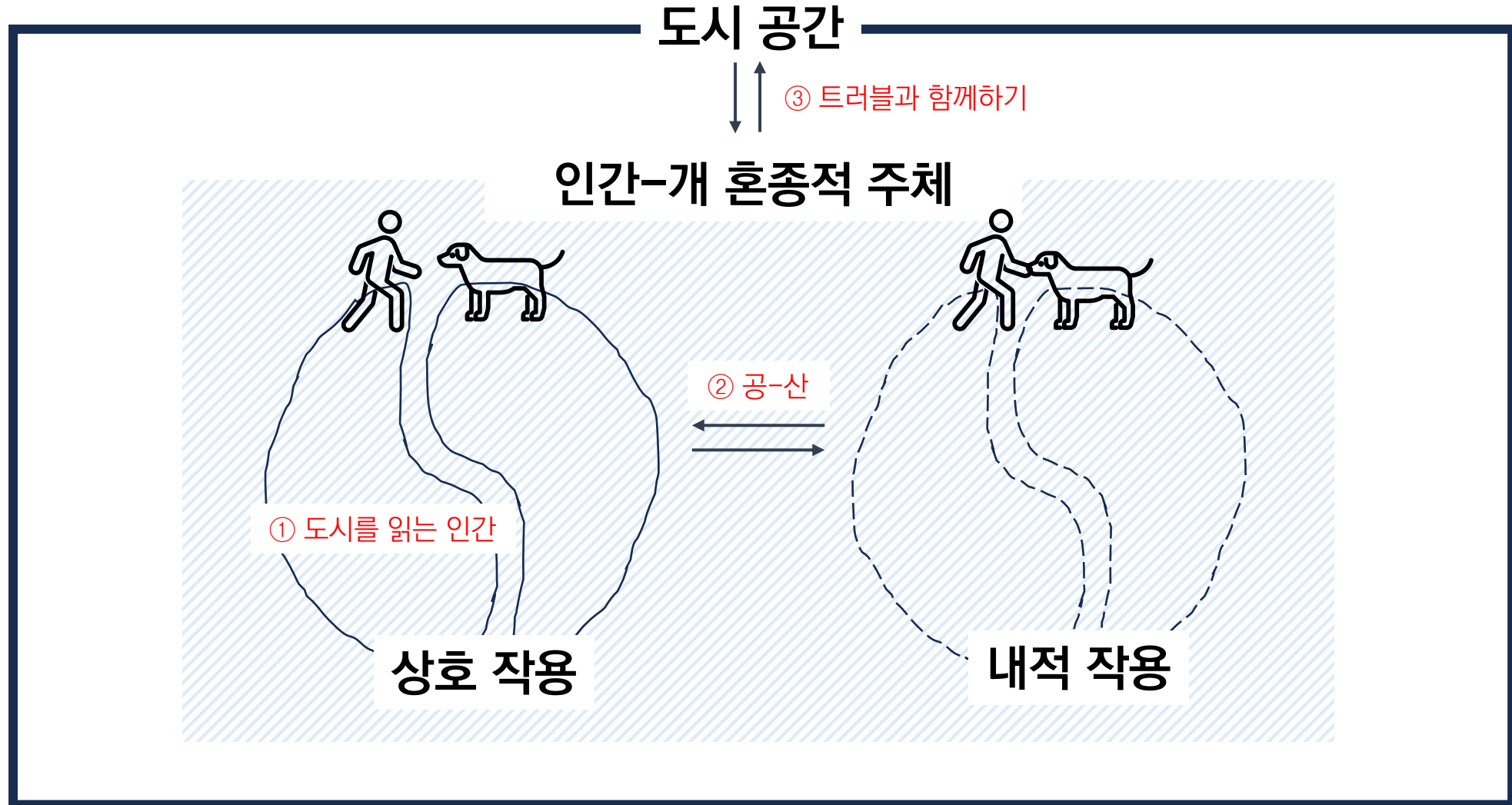


<복수종의 실뜨기> 나세르 무프티의 드로잉, 2011

- 실뜨기는 '현재 진행 중인' '응답을 구하는' 행위이자 주기와 받기(능동과 수동)으로 이루어짐.
- 공-산은 '하나의 대상'을 만든다는 의미가 아닌 각자가 주체로서 '상대의' 몸을 만든다는 것의 반복. 나의 부분은 상대가 만든 것이며, 주체와 대상은 계속해서 바뀜.
- 공-산의 또 다른 함의는 위계가 다른 권력을 가진 주체가 모여 만든다는 것.

(Donna Haraway. 트러블과 함께하기. 2016; 최유미, 해러웨이, 공-산의 사유, 2020)

# 문제적trouble 주체와 함께-되기: 공-산



# 함의: 도시의 반려견 산책 실천

- 인간-기계, 인간-동물 경계는 동등한 대상 간의 구분짓기가 아니라, 인간이 대상보다 우위에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함.
-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, ChatGPT의 등장, 가상훈련에서 AI무인기가 인간 조종사를 살해하는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과 기계의 결합은 삶의 전 분야에서 더욱 공고해 지고 인간이 기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확신 또한 사라지게 됨.
- 통제·책임responsibility질 수 없는 문제적trouble 주체와 인간이 함께하는 세상이 되었음.
- 해러웨이(2021)는 이러한 문제적 주체를 기이한 친척 또는 반려종으로 개념화하면서 응답response-ability을 통해 끊임 없이 서로를 만들어 나가는 공-산sympoiesis을 실천하자고 독려함.
- 반려견 산책은 목줄의 긴장감과 서로의 몸의 방향이 만들어내는 불완전한 대화를 통해 걷기와 서기라는 응답을 끊임없이 만들어나감. '반려견 산책' 행위 자체가 하나의 '공-산'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인간-반려견 간의 불완전한 대화를 통해 걷기와 서기를 반복하는 행위가 '공-산'임.
- 더욱이 이 때의 공-산은 사적 공간뿐만 아니라, 도시 공적공간에서 다양한 주체(보행자, 또 다른 반려견, 견주, 개를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, 길고양이, 새, 사람이 먹고 버린 닭뼈/돼지뼈, 노상방뇨의 흔적)가 얽혀 발화하는 과정.

# 함의: 도시의 반려견 산책 실천

- 해러웨이(2020)는 공-산sympoiesis을 통해 협력적 관계의 공생을 꿈꾸며 세속적인worldly 반려종의 비-무구함을 "죄 없이 당하기만 하는 수동적 위치"에 있을 수 없음으로 표현했음.
- 하지만 인간에게 가축화된 반려견은 일과의 대부분 시간을 땅을 디디지 못하고, 잠깐의 산책조차 2m의 자유만 허락됨.
  - 반려견이 자신의 야생성을 능동적으로 보여주기도 함 (예, 개물림 사고).
- '트러블과 함께하기'는 비인간이 "죄 없이 당하기만 하는 수동적 위치"에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, 타자를 "죄 없이 당하게 만들 수 있는 능동적 위치"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부터 시작될 것임.



사진. 개물림 사고를 유발한 연예인 A씨 반려견  
(출처 [https://www.chosun.com/site/data/html\\_dir/2017/10/24/2017102400655.html](https://www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7/10/24/2017102400655.html))

# 함의: 도시의 반려견 산책 실천

1. 도시를 전유하는 다양한 주체에 대한 연구는 관계 맺기가 만들어 내는 서로 다른 층위의 도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음. 기존에 주목받지 못했던 주체 중 (특히 비인간이지만 인간만큼의 대접을 받고 있는) 반려견과의 혼종적 주체에 대한 연구는 이후 도시의 다양한 양상의 비인간에 대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음.
2. 도시의 반려견 활동을 반려견 놀이터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풀어낸 선행연구에서 범위를 확장하여 반려견 놀이터와 같이 혼종적 주체가 향유하는 도시 공간과, 이를 둘러싼 도시의 지역적 차이가 유발하는 인간-반려견 활동에 대해 분석하고자 함.
3. 해러웨이는 반려견 미즈 카엔 페퍼와의 어질리티 활동을 통해 경험한 반려견과의 상호-작용inter-action과 내적-작용intra-action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-산symphoiesis으로 발전한다고 밝혔으나, 공-산의 등장물이 위치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해석은 미비하였음. 본 연구를 통해 "도시 공간에서" 인간-비인간의 공-산이 만들어 내는 모습에 대해 보고자 함.



**감사합니다**



# 자동차 도시에서 보행친화도시로의 전환

<문>

농림축산식품부

**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강화**

**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·가슴줄 길이가 2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**

2022년 2월 11일 시행

\*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(위반 시,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)

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> 동물보호법 시행규칙(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0호)

